

KIA 앤더슨, 150km 강속구에도 제구 ‘글쎄’

시범경기 첫 선발 등판

3⅔이닝 2실점 아쉬움

키움에 6-2 승리…2연승

본격적인 실전에 돌입한 KIA 타이거즈의 파이어볼러 우안 앤더슨(29)이 시범경기에 첫 선발 출전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앤더슨의 주 무기는 150km를 넘기는 강력한 구위다. 이날 경기에서도 최고 시속 150km에 이르는 빠른 볼을 뿌리며 몸 상태를 끌어올린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제

구는 좀 더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앤더슨은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KBO리그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⅔이닝 동안 2피안타 2실점 3사사구 1삼진을 기록했다. 앤더슨은 3회까지 단 1점도 내주지 않으며 한화 타선을 틀어막았으나 4회에 흔들린 것이 아쉬웠다.

이날 앤더슨은 키움 타자들을 상대로 60개의 공을 던지면서 첫 시범경기 등판을 마무리했다. 앤더슨은 직구 29개, 투심 5개, 커브 3개, 슬라이더 19개, 체인지업 4개 등을 던지며 여러 구종을 점검했다.

앤더슨은 1회 말 선두타자 김혜성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다. 하지만 이어진 1사 1루에서 상대 박주홍을 내야

뜬공으로 잡았고 후속 타자 에디슨 러셀도 중견수 플라이아웃 처리하며 실점 없이 1회를 끝냈다.

2회 말에는 키움 김태진과 이형종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무사 1,2루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송성문을 땅볼로 유도하면서 1루 주자를 터치아웃으로 잡아냈다. 이어 후속타자 김재현을 투수 라인드라이브로 잡아냈고 곧바로 1루로 토스해 송성문을 포사아웃시켰다.

앤더슨은 3회 말은 깔끔하게 막았다. 이병규와 김혜성, 임지열을 각각 땅볼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4회에는 2개의 아웃카운트를 잘 잡아내고 도 김태진과 이형종을 연속 볼넷으로 내보

내면서 2사 1, 2루 위기에 놓였다. 이어 송성문의 땅볼 상황에서 포구 실책을 기록하면서 1실점했고 결국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이후 앤더슨의 마운드를 이어받은 윤준현이 김재현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으며 실점이 늘었다.

한편 KIA는 이날 키움에 6-2로 승리하며 시범경기 2연승을 내달렸다. 마운드에서는 윤준현, 송후섭(이상 0⅔이닝), 최지민(1⅔이닝), 전상현(1이닝), 박도규(1이닝), 김승현(1이닝)등이 연이어 등판해 무실점 행진으로 키움 타선을 틀어막았다. 타선에서는 김도영이 1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로 활약했고 김선빈도 멀티히트를 쳐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조혜원 기자



KIA 선발 앤더슨이 역투하고 있다.



골 세리머니 하는 홀란 맨체스터시티 엘링 홀란이 15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후반 8분 자신의 네번째 골을 넣은 후 경중 뛰어오르며 환호하고 있다. 홀란은 이날 5골을 기록했고 맨체스터 시티는 라이프치히를 7-0으로 이겼다. /로이터-연합뉴스

강진서 18일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선발전

올해 열리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열린다.

대한세팍타크로협회는 대표 선발전을 겸한 제21회 전국 학생 세팍타크로대회 및 제15회 세팍타크로 실업리그를 18일부터 22일까지 강진 제1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고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총 41개 팀에서 3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세팍타크로 국가대표는 이번 1차 선발전 평가 점수에 추후 개최

예정인 2차 선발전 점수를 합산해 총 8명을 선발한다.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은 “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 것”이라며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제 기량을 발휘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도 “올해 강진에서는 세팍타크로 대회뿐만 아니라 10월에는 전국 체육대회도 열린다”며 “강진에서 열리는 첫 세팍타크로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인천전 승리로 반전 노린다

18일 홈경기…엄지성 복귀

광주FC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에서 반전을 노린다

광주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전복과의 원정에서 0-2 패배를 기록했다. 리그 우승을 바라보는 팀과의 맞대결에서 광주는 후반에만 6차례의 슈팅을 날리며 득점을 노렸으나 끝내 전복의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는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완점도 확실히 드러났기에 이를 해결해야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홈 승리를 챙긴 뒤 A매치 휴식기를 맞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 시즌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4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창단 첫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또 이명주, 김도혁, 김보섭 등 리그 수준급 선수들과 함께 제르소와 신진호 등을 영입하는 등 강력한 스쿼드까지 구축했다. 만

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역대 전적은 팽팽하다. 6승 12무 6패다. 하지만 최근 전적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광주는 최근 맞대결이었던 2021시즌 인천에게 2승 1무 1패로 앞섰으며 홈에서 2승 1무로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축구전용구장 개장 첫 승의 제물도 인천이었다. 또 지난 시즌 2022 하나원큐 FA컵 3라운드 원정길에서 6-1 대승을 거두는 등 자신감이 차 있다.

레드카드도 지난 전북전을 나서지 못했던 엄지성의 복귀는 천군만마다. 광주는 엄지성의 복귀로 공격에서 파괴력과 마무리에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최전방 공격수 허율과 다재다능함으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희균, 중원의 살림꾼 정호연까지 유스 출신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엄지성, 허율, 정호연은 각각 울림픽 대표팀과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만큼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

광주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신진호, 이명주에서 시작되는 패스 줄기를 차단해 중원



엄지성

을 장악해야 한다. 엄지성, 산드로, 아사니 등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으로 맞불을 놓는다면 승리를 챙길 수 있다. /조혜원 기자

시체육회 집행부 출범

김영삼 사무처장 선임



김영삼

광주시체육회가 민선 2기 첫 이사회를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시체육회는 15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회장 등 선임 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이사회를 개

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임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광주시체육회 일반현황 보고,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과 보고, 종목단체 임원인준 승인 보고와 각종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임명 등



15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민선 2기 새로운 집행부가 광주체육 발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의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신임 사무처장에는 김영삼 광주시소프트 테니스협회 이사가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임명됐다. 김영삼 신임 사무처장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 국민소통 상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의 직을 맡고 있다.

김영삼 사무처장은 “전갑수 회장님의 뜻

을 받들어 민선 2기 체육회가 순항하고 광주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책무를 다하겠다”며 “오직 시민과 선수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갑수 회장은 “농부가 봄을 맞아 씨앗을 뿌려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맺듯이 민선 2기 시대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란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배드민턴 전영오픈, 김소영-공희용 첫 승전보

배드민턴 여자복식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이 2023전영오픈에서 첫 승전보를 알렸다.

세계랭킹 6위 김소영-공희용 조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대회 첫날 여자복식 32강전에서 세계랭킹 21위인 린다 이플라-이사벨 로하우(독일) 조를 2-0(21-11 21-3)으로 눌렀다.

1세트를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이긴 김소영-공희용 조는 2세트에선 15연속 득점하

며 경기를 29분 만에 끝냈다. 16강 상대는 대한의 리자산-민정선 조다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대회인 전영오픈은 1899년에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배드민턴대회다.

한국은 1985년부터 2000년까지 한 차례만 제외하고 매년 금메달을 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입지가 좁아들었다.

가장 최근의 금메달 성적은 2017년 여자복식 장예나-이소희 조다.

지난해 대회에선 여자단식 안세영이 결승전에서 ‘숙적’ 아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패해 준우승했고, 여자복식 정나은-김혜정 조가 최종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올해는 안세영을 필두로 한 13명의 대표팀이 6년 만의 종목 우승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특히 안세영은 올해 들어 결승전에서만 세 번 맞붙어 두 번 패한 아마구치에게 지난해 패배까지 한꺼번에 설욕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연합뉴스